

보건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 정보활용도

박규량·박재용·한창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Abstract |
| IV. 논의 | |

I. 서론

1969년 12월 정보공유를 위해 미국 서부 4개 대학을 연결하는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를 시작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온 WWW(World Wide Web)의 등장에 이어 현재 본격적인 상업화, 대중화, 정보 고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http://my.dig.co.kr/users2000/erke/iact1-02.htm>, 2001; Boyer 등, 1998).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 인구도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의 사용인구수가 1,393만 명으로서 1997년 163만 명에 비해 3년 동안에 거의 9배정도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주로 20~30대 초반, 남성 및 고학

력자가 인터넷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30대 후반, 여성, 고교생과 주부 이용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송태민 등, 2000; 최양희 등, 1995).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1999년 10월 초등학생 13.2%, 중학생 48.7%, 고등학생 57.1% 그리고 대학생 82.1%이었고, 2001년 9월에는 초등학생 84.3%, 중학생 98.3%, 고등학생 97.3% 그리고 대학생 99.5%로 대학생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http://stat.nic.or.kr/iuser.html>, 2001). 이처럼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의 습득이 단순정보에서 전문정보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교신저자: 한창현

대구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전화번호: 053-420-6702, E-mail: knuph@wmail.knu.ac.kr

이 정보습득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의료에 대한 지식은 의료진들의 점유물이었으나 점차 소득이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하여 건강에 대한 기대감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및 가족, 일반인들은 의학지식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정보에 대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책자, 신문, 방송 등 여러 매체에서 앞 다투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함에 따라 보다 많은 건강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고 제공되고 있다(정영철, 2001). 건강관련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의 하나이며, 건강의 중요성과 관심의 증가로 인해 인터넷 건강관련 사이트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Jadad와 Gagliardi, 1998; 강남미 등, 1999a; 손애리, 2000). 그리고 건강관련 기관, 대학 및 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건강관련 웹사이트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997년에는 10,000개 이상의 사이트(Pealer와 Dorman, 1997)가, 2000년도에는 15,000개의 웹사이트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arwick, 2000).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련 사이트만 해도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이트까지 합하면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의 양은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손애리, 2000).

가장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성인후기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이 크고, 이 시기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성인 중기 및 후기의 건강행위와

이에 따른 건강한 삶의 기반이며, 건강실천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Yarcheski와 Mahon, 1989; 김신정 등, 1996)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습득과 행위실천은 다른 시기보다도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김보경 등, 2002). Breslow(1983)는 건강증진을 질적·양적으로 충분한 삶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들로서 해부학적, 생리학적, 화학적, 면역학적, 유전학적, 행동과학적인 지표들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매일 행하는 건강과 관련된 생활양식이 건강상태나 사망률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정보의 활용과 행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특히 보건학 관련 대학생)들의 건강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인터넷 활용률을 조사하고, 이들의 건강행태와 연관시켜봄으로써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건강행위의 습관화를 위한 건강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대구·경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중 보건학 관련 학과 학생 2,400명(4년제 학부학생 400명, 전문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2년 3월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기재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기재가 불충분한 362부를 제외한 2,03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건강행위 측정 7문항,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 정보활용도 18문항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일반

적인 특성과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 정보활용도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정·작성하였다. 인터넷 검색경험은 지난 1년간 1번 이상 검색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개인적 특성 중 학과는 보건학과와 의무·보건행정학과는 행정 분야로, 간호학과와 치위생 학과는 간호 분야로, 방사선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는 기술 분야로 분류하였다.

전체 인터넷 검색자 중 건강관련사이트 접속 비율은 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11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응답의 빈도를 고려하여 30%이하(하), 40~70%(중), 80%이상(상)으로 하여 재범주화 하였다.

건강행위 측정도구는(Belloc과 Breslow, 1972; Breslow와 Emstrom, 1980)의 건강행위측정도구 7문항을 이용하였으며, 각 문항을 0점 또는 1점으로 점수화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0-3점은 좋지 않음, 4-5점은 보통, 6-7점은 좋음으로 3단계로 재분류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ver.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χ^2 -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 2,038명 중 남학생이 517명(25.4%), 여학생이 1,521명(74.6%)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1학년이 35.0%이었고, 기술 분야 학생이 66.0%이었으며,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60.0%, 주관적으로 건강하다는 학생이 48.9%, 15일간 상병이 없었다는 학생이 72.0%,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없다는 학생이 70.6%이었다. 여학

생의 경우는 2학년이 43.1%, 기술분야 학과 학생이 39.3%이었고,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68.6%,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라는 학생이 54.0%, 15일간 상병이 없었다는 학생이 58.1%,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없다는 학생이 70.0%이었다(표 1).

대상자 중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건강관련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는 학생은 58.8%이었다. 검색 경험률은 여학생이 60.4%, 남학생의 54.2%보다 더 높았고($p<0.05$), 4학년이 75.9%로 학년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간호 분야 학과가 69.0%로 가장 높았다($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허약하다는 학생의 검색경험률이 64.3%로 건강하다는 학생의 57.2%에 비해 높았다. 지난 15일간 아픈 적이 있다는 학생의 검색률이 61.4%로 아픈 적이 없었던 학생의 55.6%보다 높았고,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학생의 검색률이 66.4%로 없다는 학생의 55.6%보다 높았으며($p<0.01$), 건강행위 점수가 '중'인 학생이 60.9%로서 '상'인 학생의 40.0%보다 높았고, 나머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전체 인터넷 사용 중 건강관련사이트 접속비율이 30% 미만(하)이 89.8%, 40~70%(중)가 9.0%, 80% 이상(상)이 1.2%로 대체로 접속비율이 30% 미만으로 낮았다. 접속비율이 30% 미만(하)의 경우가 남학생이 94.4%로 여학생 88.3%보다 높았고($p<0.01$), 1학년이 99.2%로 가장 높았으며($p<0.01$),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91.7%로 기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2).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정보 검색순위를 내용별로 1~3위까지 제시한 것을 점수화하여 종합순위를 매긴 결과,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검색이 1순위였고, 운동관련 정보가 2순위, 비만관

련 정보가 3순위였고, 그 다음이 식사, 스트레스, 흡연 등의 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종합 순위 1순위가 각종 질병, 2순위가 운동, 3순위가 흡연이었고, 여학생은 각각 각종질병, 비만, 운

동 순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 검색이 가장 많았다(표 3).

<표 1> 대상 보건관련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계
학년			
1학년	181(35.0)	383(25.2)	564(27.7)
2학년	161(31.2)	656(43.1)	817(40.1)
3학년	151(29.2)	452(29.7)	603(29.6)
4학년	24(4.6)	30(2.0)	54(2.6)
학과			
행정 분야	171(33.0)	342(22.5)	513(25.2)
간호 분야	5(1.0)	582(38.3)	587(28.8)
기술 분야	341(66.0)	597(39.3)	938(46.0)
주거형태			
자택	310(60.0)	1,043(68.6)	1,353(66.4)
기타	207(40.0)	478(31.4)	685(33.6)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253(48.9)	600(39.4)	853(41.9)
보통	224(43.4)	821(54.0)	1,045(51.2)
허약	40(7.7)	100(6.6)	140(6.9)
15일간 상병유무			
있음	145(28.0)	638(41.9)	783(38.4)
없음	372(72.0)	883(58.1)	1,255(61.6)
가족 중 아픈 사람			
있음	152(29.4)	443(29.1)	595(29.2)
없음	365(70.6)	1,078(70.9)	1,443(70.8)
계	517(100.0) [25.4]	1,521(100.0) [74.6]	2,038(100.0) [100.0]

<표 2> 대상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경험률과 접속비율

단위: %

	인수	검색 경험률 ¹⁾		건강관련 사이트 접속 비율 ²⁾		
		검색자수	경험률	하	중	상
성						
남학생	517	280	54.2*	94.6	5.0	0.4**
여학생	1,521	918	60.4	88.3	10.2	1.4
학년						
1학년	564	245	43.4**	99.2	0.8	-**
2학년	817	488	59.7	91.6	7.8	0.6
3학년	603	424	70.3	82.5	15.1	2.4
4학년	54	41	75.9	87.8	9.8	2.4
학과						
행정 분야	513	291	56.7**	92.8	6.2	1.0
간호 분야	587	405	69.0	81.7	16.3	2.0
기술 분야	938	502	53.5	94.6	4.8	0.6
주거형태						
주택	1,353	794	58.7	91.7	7.8	0.5*
기타	685	404	59.0	86.1	11.4	2.5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853	488	57.2	92.6	7.0	0.4
보통	1,045	620	59.3	87.9	10.5	1.6
허약	140	90	64.3	87.8	10.0	2.2
15일간 상병유무						
있음	783	481	61.4	89.0	9.6	1.5
없음	1,255	717	57.1	90.4	8.6	1.0
가족 중 아픈 사람						
있음	595	395	66.4**	88.6	9.9	1.5
없음	1,443	803	55.6	90.4	8.6	1.0
건강행위						
상	5	2	40.0	100.0	-	-
중	384	234	60.9	93.2	6.4	0.4
하	1,649	962	58.3	89.0	9.7	1.4
계	2,038	1,198	58.8	89.8	9.0	1.2

* P< 0.05, ** P<0.01

주: 1) 1년 동안 한번 이상 인터넷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는 경우임.

2) 전체 인터넷 검색 중 건강관련 사이트 접속 비율(하: ≤30%, 중: 40~70%, 상: 80%≤)

<표 3>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정보 검색순위

단위: %

검색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순위 ¹⁾
남학생				
각종질병	5.9	4.4	5.8	1
운동	7.1	3.1	3.6	2
흡연	5.3	2.0	1.6	3
스트레스	1.8	2.3	2.1	4
음주	0.7	3.3	1.7	5
식사	0.7	2.8	1.8	6
비만	0.7	2.1	1.6	7
기타	0.7	0.6	3.1	8
수면	0.4	1.5	0.8	9
무응답	0.1	1.3	1.3	10
여학생				
각종질병	24.4	14.5	18.0	1
비만	21.0	14.5	9.4	2
운동	15.1	12.5	12.6	3
식사	4.9	12.4	9.9	4
스트레스	2.8	9.3	7.8	5
기타	2.1	3.1	9.2	6
음주	1.8	2.7	4.1	7
흡연	3.3	1.5	1.2	8
무응답	0.1	3.8	4.6	9
수면	1.3	2.4	2.8	10
전체				
각종질병	30.3	18.9	23.8	1
운동	22.2	15.6	15.6	2
비만	21.6	16.5	11.0	3
식사	5.6	15.2	11.8	4
스트레스	4.6	11.5	9.9	5
흡연	8.6	3.5	2.8	6
기타	2.8	3.7	12.3	7
음주	2.4	6.0	4.1	8
무응답	0.2	5.1	5.9	9
수면	1.8	3.9	2.8	10

주: 1) 종합순위: 가중점수 (= 1순위×3 + 2순위×2 + 3순위×1)에 따른 순위임.

보건학 관련분야별 정보검색순위도 내용별 1~3위까지 제시한 것을 점수화하여 종합순위를 매긴 결과, 사고와 응급처치 관련 분야를 가장 많이 검색하였으며, 의료기술 분야가 2순위, 성인 및 노인보건 분야가 3순위였고, 그 다음으로 식품위생, 보건영양, 역학 및 전염병관리 등의 순이었다(표 4).

건강관련 사이트 1회 접속 시 소요시간은 30분 미만인 49.1%, 30분~1시간이 34.3%, 1~2시간이 13.4%, 2시간 초과가 3.3%이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1회 접속 시 소요시간이 길었고, 학년이 높을수록, 학과는 간호 분야 학과에서 접속시간이 길었다(표 5).

건강관련 인터넷 접속동기는 지식습득을 위해서가 22.8%, 평소관심이 많아서 17.9%, 과제물제출을 위해 36.1%,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

어서 15.0%, 기타 8.2%이었다. 접속동기에 유의한 변수로는 성, 학년, 학과,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 중 아픈 사람의 유무였다(표 6).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 정보의 충분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가 19.6%, 보통이다가 56.3%, 부족하다가 24.1%이었다. 성, 주거형태,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다.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 정보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8.4%, 보통이다가 63.1%, 부족하다가 18.4%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상태였다(표 7).

교과학습과 관련한 인터넷 활용도는 많이 한다가 24.0%, 보통 한다가 43.6%, 적게 한다가 32.4%이었다. 학년, 학과,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 중 아픈 사람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다(표 8).

<표 4> 인터넷을 통한 보건학과 관련분야의 정보 검색순위

단위: %

검색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순위 ¹⁾
사고와 응급처치	14.5	19.6	17.5	1
의료기술	13.5	14.9	17.3	2
성인 및 노인보건	17.1	11.8	7.8	3
식품위생	11.6	8.7	5.3	4
보건영양	7.8	9.8	5.6	5
역학 및 전염병관리	7.3	6.4	7.3	6
보건행정 및 정책	5.4	4.8	8.4	7
환경보건	7.1	2.9	4.5	8
학교보건 및 보건교육	4.6	5.2	6.3	9
정신보건	2.2	4.5	4.3	10
산업보건	4.0	2.8	1.7	11
모자보건	1.8	4.8	2.7	12
기타	1.4	1.6	8.7	13
무응답	1.6	2.1	2.5	14

주: 1) 종합순위: 가중점수(= 1순위×3 + 2순위×2 + 3순위×1)에 따른 순위임.

<표 5> 인터넷 접속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사이트 1회 접속시 소요시간

단위: %

	인수	인터넷 1회 접속 시 소요시간			
		≤30분	30분~1시간	1~2시간	2시간<
성					
남학생	280	62.9	27.1	7.5	2.5**
여학생	918	44.9	36.5	15.1	3.5
학년					
1학년	245	60.4	31.8	6.9	0.8**
2학년	488	46.9	36.9	12.7	3.5
3학년	424	45.5	32.1	18.2	4.2
4학년	41	43.9	41.5	9.8	4.9
학과					
행정 분야	291	49.1	33.7	14.1	3.1**
간호 분야	405	35.3	39.8	20.0	4.9
기술 분야	502	60.2	30.3	7.6	2.0
주거형태					
자택	794	49.4	35.5	12.8	2.3*
기타	404	48.5	31.9	14.4	5.2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488	52.3	31.8	13.3	2.7
보통	620	47.3	35.5	14.2	3.1
허약	90	44.4	40.0	7.8	7.8
15일간 상병유무					
있음	481	45.9	37.2	13.3	3.5
없음	717	51.2	32.4	13.4	3.1
가족 중 아픈 사람					
있음	395	45.1	35.7	15.4	3.8
없음	803	51.1	33.6	12.3	3.0
계	1,198	49.1	34.3	13.4	3.3

* P<0.05, ** P<0.01

<표 6> 인터넷 접속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사이트 접속동기

단위: %

	인수	건강 관련 사이트 접속 동기 ¹⁾				
		①	②	③	④	⑤
성						
남학생	280	24.6	18.6	25.0	20.0	11.8**
여학생	918	22.2	17.6	39.5	13.5	7.1
학년						
1학년	245	24.9	20.4	18.8	20.4	15.5**
2학년	488	23.2	18.6	36.9	15.0	6.4
3학년	424	21.5	15.8	43.9	12.7	6.1
4학년	41	19.5	14.6	51.2	7.3	7.3
학과						
행정 분야	291	24.1	20.6	28.9	17.9	8.6**
간호 분야	405	22.2	12.6	51.6	8.9	4.7
기술 분야	502	22.5	20.5	27.9	18.3	10.8
주거형태						
주택	794	24.4	18.3	34.9	15.2	7.2
기타	404	19.6	17.1	38.6	14.6	10.1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488	23.2	18.6	38.5	11.3	8.4**
보통	620	21.9	17.7	36.0	16.1	8.2
허약	90	26.7	14.4	24.4	27.8	6.7
15일간 상병유무						
있음	481	22.0	17.5	35.3	18.1	7.1
없음	717	23.3	18.1	36.7	13.0	8.9
가족 중 아픈 사람						
있음	395	19.0	16.5	31.1	26.6	6.8**
없음	803	24.7	18.6	38.6	9.3	8.8
계	1,198	22.8	17.9	36.1	15.0	8.2

* P<0.05, ** P<0.01

주: 1) ① 지식습득을 위해서 ② 평소 관심이 많아서 ③ 과제를 제출을 위해서 ④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어서 ⑤ 기타

<표 7> 인터넷 접속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사이트 정보의 충분도와 만족도

단위: %

	건강관련 사이트 정보충분도			건강관련 사이트 정보만족도		
	충분함	보통	부족함	만족함	보통	부족함
성						
남학생	26.4	52.5	21.1**	21.4	60.0	18.6
여학생	17.5	57.4	25.1	17.5	64.1	18.4
학년						
1학년	18.0	53.9	28.2	16.7	62.9	20.4
2학년	17.8	57.6	24.6	16.6	65.8	17.6
3학년	21.9	57.1	21.0	21.0	61.8	17.2
4학년	26.8	46.3	26.8	24.4	46.3	29.3
학과						
행정 분야	19.9	58.1	22.0	19.2	61.9	18.9
간호 분야	18.3	55.1	26.7	19.8	63.2	17.0
기술 분야	20.5	56.2	23.3	16.9	63.7	19.3
주거형태						
자택	18.5	58.9	22.5*	17.3	65.1	17.6
기타	21.8	51.0	27.2	20.8	59.2	20.0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23.8	56.1	20.1**	21.5	63.7	14.8**
보통	16.8	57.1	26.1	17.1	63.4	19.5
허약	16.7	51.1	32.2	11.1	57.8	31.1
15일간 상병유무						
있음	17.9	59.7	22.5	17.3	63.2	19.5
없음	20.8	54.0	25.2	19.2	63.0	17.7
가족 중 아픈 사람						
있음	17.7	56.7	25.6	17.7	62.3	20.0
없음	20.5	56.0	23.4	18.8	63.5	17.7
계	19.6	56.3	24.1	18.4	63.1	18.4

* P<0.05, ** P<0.01

<표 8> 인터넷 접속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교과학습과 관련한 인터넷 활용도

단위: %

	인수	많이함	보통	적게함
성				
남학생	280	22.1	41.4	36.4
여학생	918	24.6	44.2	31.2
학년				
1학년	245	21.2	37.1	41.6**
2학년	488	21.1	43.9	35.0
3학년	424	27.6	47.2	25.2
4학년	41	39.0	41.5	19.5
학과				
행정 분야	291	20.6	45.0	34.4**
간호 분야	405	35.3	39.5	25.2
기술 분야	502	16.9	46.0	37.1
주거형태				
자택	794	24.4	44.6	31.0
기타	404	23.3	41.6	35.1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488	27.3	45.5	27.3*
보통	620	22.3	42.4	35.3
허약	90	18.9	41.1	40.0
15일간 상병유무				
있음	481	24.9	43.0	32.0
없음	717	23.4	43.9	32.6
가족 중 아픈 사람				
있음	395	19.2	44.1	36.7*
없음	803	26.4	43.3	30.3
계	1,198	24.0	43.6	32.4

* P<0.05, ** P<0.01

전체 대상자 중 건강관련 인터넷 검색자를 대상으로 한 Breslow 건강행위 각각에 대한 실천율은 비흡연을 86.2%, 비음주를 28.9%, 운동실천율 22.6%, 정상수면자 비율 66.3%, 아침식사자 비율 37.1%, 비간식자 비율 4.8%, 표준 BMI자 비율은 14.3%이었다. 비검색자의 건강행위

실천율은 비흡연을 84.9%, 비음주를 26.0%, 운동실천율 18.5%, 정상수면율 72.1%, 아침식사를 34.3%, 비간식을 5.0%, 표준 BMI 17.0%로 대체로 검색자의 건강행위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 검색을 하는 학생이 안 한다는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건강행위는 운동이었고 유의하게

<표 9> 인터넷 건강사이트 검색유무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율

	남학생		여학생		계	
	검색자 (280명)	비검색자 (237명)	검색자 (918명)	비검색자 (603명)	검색자 (1,198명)	비검색자 (840명)
	비흡연율	48.2	50.2	97.8	98.5	86.2
비음주율	11.8	12.7	34.1	31.2	28.9	26.0
운동실천율	55.4	38.0	15.9	10.8**	22.6	18.5*
정상수면자 비율	66.4	66.7	66.2	74.3**	66.3	72.1**
아침식사자 비율	36.1	32.5	37.5	35.0	37.1	34.3
비간식자 비율	10.4	11.8	3.1	2.3	4.8	5.0
표준BMI 비율	30.7	31.2	9.3	11.4	14.3	17.0

* P<0.05, ** P<0.01

주: 1) 운동: 정규적 운동을 1주일에 1회 이상 하는 비율

2) 수면: 하루에 7-8시간 자는 비율 3) 아침식사: 매일 먹는 비율

4) 간식: 전혀 안 먹는 비율 5) BMI(Body Mass Index; kg/m²) 20-24.9 사이의 비율

<표 10> 인터넷 검색유무에 따른 건강행위 및 점수

	인수	건강행위 (%)			건강행위점수 (평균±표준편차)
		좋음 (6-7점)	보통 (4-5점)	좋지않음 (0-3점)	
남학생					
검색자	280	-	21.1	78.9	2.78±0.40
비검색자	237	0.8	18.6	80.6	2.79±0.42
여학생					
검색자	918	0.2	19.1	80.7	2.80±0.40
비검색자	603	0.2	17.6	82.3	2.82±0.38
전체					
검색자	1,198	0.2	19.5	80.3	2.80±0.40
비검색자	840	0.4	17.9	81.8	2.81±0.39
계	2,038	0.2	18.8	80.9	2.80±0.40

낮은 건강행위는 정상수면이었다(표 9).

건강행위 빈도는 Breslow Index가 0-3점인 군이 80.9%, 4-5점인 군이 18.8%, 6-7점인 군이 0.2%를 차지하여 대체로 건강행위를 못하고 있었으며, 건강행위 점수는 최대평점이 7점인데, 평균점수는 2.80점이었다. 인터넷 검색자와 비검색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인터넷 검색자가 비검색자보다 건강행위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건강행위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0).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보건관련 대학생들의 58.8%가 1년 동안 한번 이상 인터넷을 통해 건강관련정보 검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강남미 등(1999b)의 한국여성 건강 및 영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PC통신에 의한 정보 서비스 요구분석에서 PC통신 이용자의 52.0%가 건강정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했고, 반면 인터넷 이용자의 16.1%보다는 훨씬 높은 검색 경험을 이었다. 또한 미국 일반인의 건강 및 의료정보 검색 경험률 36.7%(Jadad와 Gagliardi, 1998)보다는 높은 검색 경험을 이었다.

검색 경험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학년이 높을수록, 간호분야의 학생일수록, 그리고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학생에게서 검색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남자가 더 많으나 여자가 건강관련 정보 이용률이 높은 것은 간호분야 학생에게서 건강관련 검색률이 높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겠고, 학년이 높을수록 검색률이 높아지는 것은 대상자

가 보건관련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건강 또는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가 건강정보 검색률이 높은 것은 가족의 질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 정보의 검색순위가 각종 질병이 가장 많다는 결과와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겠다.

참고로, 최근 PC 통신의 의료 관련 메뉴에서 다룬 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인터넷의 건강관련 사이트에서 다룬 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통신망에 질문 및 응답란을 두어 운영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1,712건으로 일일 평균 4건이었고, 평균 나이는 28세(20~29세)가 52.5%이었으며, 남녀 성비는 2.1로 남자가 많았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회사원의 순이었다(어해용, 1996). 유선미 등(1997)의 연구에서는 5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건강상담을 받았는데, 총 277건으로 1일 평균 1.31건이었고, 남녀 성비는 1.87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에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안지영(2000)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64%, 여자가 36%이었고, 연령의 분포를 보면 25-29세가 39.4%로 가장 많았고, 30-34세가 21.8%를 차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0대와 30대가 전체의 90.5%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6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정보 검색순위는 각종 질병에 대한 검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는 운동관련 내용, 여자의 경우는 비만관련 내용의 검색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보건의학과 관련된 분야의 검색순위로는 사고

와 응급처치, 의료기술, 성인 및 노인보전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정원 등(2002)의 다이어트넷을 통한 인터넷 영양상담 내용 및 이용자 특성 분석에서 10대는 키 크는 방법과 체중 조절, 20대는 질병, 식품, 체중조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결과와 내용이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강남미 등(1999b)의 한국여성 건강 및 영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PC통신에 의한 정보 서비스 요구분석에서 20~24세 여성은 스트레스 관리,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식사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본 연구의 각종질병, 운동, 비만의 검색순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건강관련 사이트 1회 접속 시 소요시간은 30분 미만과 30분~1시간이 가장 많았고, 전체 인터넷 접속 중 건강관련 사이트 접속률도 30%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관련정보를 습득하는 비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겠다. 유혜은 등(2001)의 연구에서 Web 강의 수강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1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남학생의 경우 2시간 42분, 여학생은 2시간 18분이고, 1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남녀 모두 1시간 48분이며, 1일 3시간 이내를 사용하는 경우가 72.5%이라고 하였다. 접속동기로는 과제물제출을 위해서와 지식 습득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의 활용이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과제물 제출을 위한 접속이 많았으며, 학과별로는 간호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교과학습과 관련한 인터넷 활용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활용도가 높았다. 그리고 건강관

련 사이트 정보에 대해 19.6%만 충분하다고 하였고 18.4%가 만족하다고 하여 정보의 충분성이나 만족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강남미 등(1999b)의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의 유용성 여부는 PC통신 이용자의 경우 11.5%가 매우 유용, 37.3%가 약간 유용, 39.2%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인터넷의 경우는 각각 14.5%, 43.6%, 35.0%로 나타났고, 오영순과 남기남(1998)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상의 의료정보가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70%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본 연구의 충분도, 만족도에서 보통 이상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건강관련 인터넷 검색자와 검색을 하지 않는 학생과 비교할 때, 운동실천율이 22.6%와 18.5%로 검색자가 유의하게 높았고, 정상수면율이 66.3%와 72.1%로 비검색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관련 정보 검색자에게서 운동실천율이 높은 이유는 검색자들의 검색순위 2위가 운동인 점을 감안할 때 운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운동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정상수면율이 낮은 이유는 검색자들이 인터넷 이용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1998)가 실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총괄보고서의 20~29세 남자성인의 경우 비흡연율 남자 69.0%, 여자 94.9%. 비음주율은 남자 59.3% 여자 67.8%, 운동실천율은 남자 69.2%, 여자 19.8%로 본 연구대상의 비흡연율은 남학생 48.2%, 여학생 97.8% 비음주율은 남학생 11.8%, 여학생 34.1% 운동실천율은 남학생 55.4%, 여학생 15.9%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건강행위 빈도는 Breslow Index가 0-3점인 군이 80.9%, 4-5점인 군이 18.8%, 6-7점인 군이 0.2%를 차지하여, 류미경 등

(199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0-3점이 54.3%, 4-5점이 42.7%, 6-7점이 3.0%라는 것과 차이를 보였고, 대체로 건강행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Walker 등(1988)의 연구결과에서 젊은이들이 노인들에 비해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정숙 등(1996)과 윤은자(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수행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건강행위에 대해 조사한 최한식 등(1996)의 연구결과에서는 대학생들이 움직임보다는 보약이나 영양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이 연구가 단면연구이므로 건강행위실천여부와 인터넷 건강관련 사이트의 검색간에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조사대상자의 선별방법에 있어서 전수조사가 아니고 무작위 추출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택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용이하기에 일반인들도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에도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 적용하면 일반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도구 개발과 자율규제 방안의 확립이 필요하고, 건강정보 제공자는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 역시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정보를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고, 추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보건관련 대학생들의 건강행태와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 정보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보건관련학과 학생 2,038명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1년 중 한번이라도 접속한 적이 있는 학생은 1,198명으로 58.8%이었고, 전체 인터넷 접속 중 건강관련 사이트 접속률은 하(30% 이하)가 89.8%, 중(40-70%)이 9.0%, 상(80% 이상)이 1.2%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련정보 주제별 검색순위로는 1순위가 각종 질병, 2순위가 운동, 3순위가 비만이였다. 인터넷 1회 접속 시 소요시간은 30분 미만이 49.1%, 30분~1시간이 34.3%, 1~2시간이 13.4%로 대체로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건강관련 사이트 접속동기로는 과제물 제출을 위해서가 36.1%, 지식습득을 위해서가 22.8%, 평소 관심이 많아서가 17.9%이었다.

건강관련 사이트 정보에 대해 19.6%가 충분, 24.1%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18.4%는 만족, 18.4%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건강관련 인터넷 검색자와 검색을 하지 않는 학생과 비교할 때, 운동실천율이 22.6%와 18.5%로 검색자가 유의하게 높았고, 정상수면율이 66.3%와 72.1%로 비검색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건관련 대학생들은 각종 질병, 운동, 비만 등에 대해 관심이 높고, 과제물 제출과 지식습득을 위해서 주로 검색하고 있지만 비교적 정보가 충분치 않고 만족도도 낮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진 건강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접수일자 :2003년 7월 10일, 게재확정 일자: 2004년 2월 14일>

참고문헌

강남미, 김진, 탁계래, 현대선. 인터넷상의 국내건강정보 사이트의 평가기준. 대한의료정보학회지 1999a;5(1):119-124.

강남미, 현대선, 탁계래. 한국여성 건강 및 영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PC통신에 의한 정보서비스 요구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9b;4(3):365-374.

김보경, 정문숙, 한창현.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와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19(1):59-85.

김신정, 안은숙. 여대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 간호학회지 1977;27(3):264-274.

류미경, 박경민, 김정남. 일부지역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 요인.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1999;25(1):29-42.

박정숙, 박청자, 권영숙. 건강교육이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1996;26(2):359-371.

보건복지부.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총괄보고서. 1998.

손애리.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 평가를 위한 기준.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000;25(2):97-107.

송태민, 정영철, 김미라.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안지영. 인터넷 건강정보의 실태 파악 및 건강 상담 내용의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어해용. PC통신 건강 상담의 설문 내용 분석. 가정의학회지 1996;17(9):232-243.

오영순, 남기남. PC통신을 위한 가정의학 의료정보제공 프로그램 구축. 가정의학회지 1998;18(9):943-952.

유선미, 박정희, 정유석, 박일환, 이상훈, 박선령.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 내용분석. 대한의료정보학회지 1997;3(2):169-175.

유혜은, 김진숙, 이미영, 이정희, 정선희, 장경자. Web강의 수강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1;6(5):963-964.

윤은자.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이행. 성인간호학회지 1997;9(2):262-271.

이정원, 이선영, 김경은. 다이어터넷을 통한 인터넷 영양상담 내용 및 이용자 특성 분석. 대한지역영양학회지 2002;7(1):86-91.

정영철. 인터넷 건강정보 자율규제방안. 제17차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108-109, 2001.

최양희, 김종권, 염현영. 인터넷의 이해와 활용. 교학사, 1995.

최한식, 최희자, 황광의, 김병성, 최현림. 대학 신입생들의 건강행위에 관한 조사. 가정의학회지 1996;17(8):633-641.

Belloc NB, Breslow L. Relationship of physic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actices. Preventive Medicine 1972;1(3):409-421.

Boyer C, Selby M, Scherrer JR, Appel RD. The health on the net code of conduct for medical and health websites.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 1998;28(5):603-610.

Breslow L, Enstrom JE. Persistence of health habits and their relationship to mortality. Preventive Medicine 1980;9(4):469-483.

Breslow L. The potential of health promotion,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s. New York, The Free Press, 50-52, 1983.

<http://my.dig.co.kr/users2000/erke/iact1-02.htm>, 2001.

<http://stat.nic.or.kr/iuser.html>, 2001.

Jadad AR, Gagliardi A. Rating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Navigating to knowledge or to Babel? JAMA 1998; 279: 611-614.

Marwick C. Ensuring ethical internet information. JAMA 2000;283:1677-8.

Pealer LN, Dorman SM. Evaluating health-

related web sites. J Sch Health 1997;67:232-5.

Walker SN, Volkan K, Sechrist KR, Pender NJ. Health-promoting Life Styles of Older Adults: Comparisons with Young and Middle-age Adults, Correlates and Pattern,

American Nursing Science 1998;11(1):76-90.

Yarcheski A, Mahon NE. A causal model of positive health practices;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oach and replication. Nursing Research 1989;38(2):88-93.

<ABSTRACT>

Utiliza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ites by Undergraduates at Colleges Related to Public Health

Kyoo-Ryang Park · Jae-Yong Park · Chang-Hyun Ha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tilization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ites by undergraduates at colleges related to public healt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by 2,400 student from university and colleges in Taegu and Kyongsangbuk-do area from March 11, 2002 to March 31, 2002.

58.8%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once connected rate of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for year. In the connection rate of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the low class($\leq 30\%$), the middle class(40-70%), and the high class($80\% \leq$) accounted for 89.8%, 9.0%, and 1.2%, respectively.

A ranking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ites, diseases are ranked first and exercise is ranked second and obesity is ranked third. The motives Students submit reports 36.1% and obtained knowledge 22.8%.

Sufficiency of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sufficient 19.6%, common 56.3%, and insufficient 24.1%, Satisfaction of health information, satisfied 18.4%, common 63.1%, and dissatisfied 18.4%.

With regards to the health behavior of the subjects that contacte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ites, the nonsmoking rate was 86.2%, the nondrinking rate was 28.9%, the rate of exercise practice was 22.6%, the rate of normal sleep was 66.3%, the rate of eating breakfast was 37.1%, the rate of not eating between meals was 4.8%, and the standard BMI was 14.3%. With regards to the health behavior of the subjects that had not contacted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ites, the nonsmoking rate was 84.9%, the nondrinking rate was 26.0%, the rate of exercise practice was 18.5%, the rate of normal sleep was 72.1%, the rate of eating breakfast was 34.3%, the rate of not eating between meals was 5.0%, and the standard BMI was 17.0%. In the frequency of health behavior, the subjects with the Breslow Index of 0-3, 4-5 and 6-7 accounted for 80.9%, 18.8%, and 0.2%, respectively. The average score of health behavior was 2.80 out of 7.

In conclusion,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ites are required for students to understand proper, reliable, interesting information and there is a need to develop simple criteria that the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 and utilize.

Key words : Colleges Related to Public Health, Undergraduate, Utilization of Health Information Sites of the Internet